박원자의 母情佛心 11 자광행 보살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석종사 시민선원 前 입승 자광행 보살은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을 통해 불교를 만났다. 한국 전쟁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의용군에 입대해 전쟁에 나가자 무사귀환을 부처님께 기원했다. 부처님의 가피로 아들은 전쟁 중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북한에서 삶을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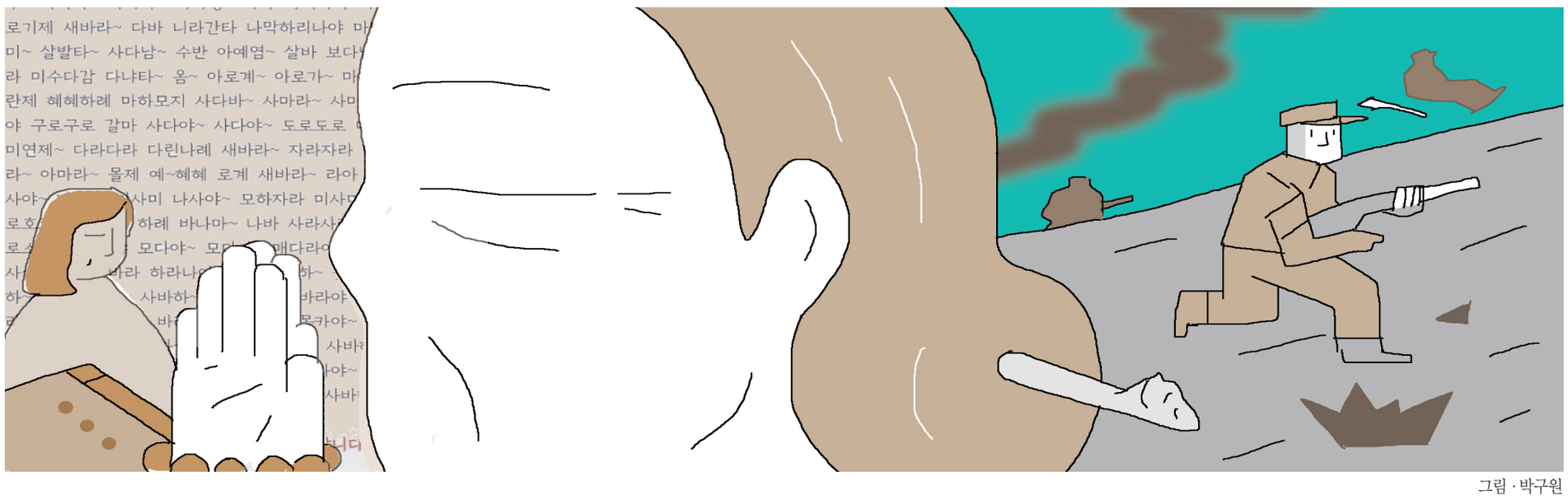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석종사 시민선원 前 입승 자광행 보살은 올해 여든 살이다. 꼿꼿한 허리에 몸에 군살하나 없다. 눈빛도 또렷하고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보이는지 그 연세라고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도반 한 사람이 '저 분은 지금 이 걸음이 부처님 법에 맞으면 걷고 법에 맞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수행하는 분'이라고 귀띔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화계사 시민선방에서부터 시작된다. 3시면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한 30뿐쯤 걸어서 선방에 온다. 새벽길, 그녀의 곁엔 40년 지기 도반이 함께한다. 한 동네 사는 도반의 나이도 어느덧 일흔여덟이다. 선방에 방부를 들여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고 있다.

59살에 시작한 참선공부는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를 찾는 수행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확신하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방에 앉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오전 11시. 최소한 하루 7시간을 좌선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먹는 것은 아쉽지 않으나 부처님께 입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것이 한스럽다."

자광행 보살의 불교입문은 어머니의 불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40살 즈음에 아들을 북으로 보냈다. 아니, 의용군으로 입대하겠다는 아들을 잡지 못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고목나무 밑에서 15살의 어린 아들을 붙들고 울며 말렸다.

"네가 이 집안에 맏아들인데 어쩌려고 그러니?"

"학교 형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일이라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 꼭 살아 돌아올게요. 혹시 내가 죽는다 해도 남동생이 있잖아요."

주문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최고의 명문인 경기중학교를 들어간 아들은 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다.

"전쟁 당일이었어요. 나는 그때 아홉 살이었는데 당시 일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강원도 어업조합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서울로 발령이 나서 먼저 서울로 가계셨고 우리는 그날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거죠. 조합에서 트럭을 마련해 우리 식구를 태워 서울로 보냈는데 홍천쯤 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 차를 빼앗기고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와보니 아버지는 인민군을 피해 어디론가 피신해 계셨고 오빠만 있었는데, 다음 날 의용군에 지원해 간 거죠."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명석했던 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라지자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절에서 살다시피 했다. 절에 다니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다.

매일 참선 정진 자광행 보살
어머니 信心 통해 불교 만나
한국전쟁서 의용군 참전했던
아들 무사생환 기원 · 정진해
부처님 가피로 살아난 아들은
北서 거주… 모친 상봉 못해

피난지 부산에서의 일이다. 추운 동짓날이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날부터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절에 갈 때면 차디찬 물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우물가에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울었다. "모성애가 저렇게 무섭구나."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아이들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고 가슴을 졸였다. 그런데 추운 날 절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손은 말할 수 없이 따뜻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홍역으로 아들 둘을 더 잃고 딸 다섯을 키우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을 기다렸다.

전쟁이 끝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고 어머니는 기도했다. 오로지 아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다. 매일 읽는 불자지송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몇 권이 떨어져나갔고,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우툴두툴한 염주는 반들반들해졌다.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진언(주문)은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였다.

자광행 보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길잡이 노릇을 하며 어두운 새벽 산길을 걸어 절에 다니곤 했지만 어머니의 불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쪽진 머리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불교를 좋아했던 사람도 달아날 것만 같았다. 하루는 어머니께 선언하듯 말했다.

"엄마 나, 기독교로 갈래요. 출가외인이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런 불손한 것이 있나' 하는 표정이었다.

"부모 앞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불효를 하고는 미안하지도 않니? 그래, 더 할 불효는 없니?"

서른아홉에 혼자 된 자신이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한 셈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으면 딸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실망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을 것인가. 쪽진 할머니 머리에 이상한 진언을 외운다고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교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던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재인 〈불교학개론〉을 구해서 옥편을 옆에 놓고 한자를 찾아가며 공부했다. 성경도 공부했다. 두 책을 나란히 놓고 공부하던 어느 날, 내가 나를 찾는 마음공부가 핵심인 불교를 선택했다.

종이가 해지도록 어머니가 읽었던 〈천수경〉을 공부해보니 어머니의 수행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참회와 감사와 발원'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 의상대사의 〈법성게〉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담겨있었다. 지금도 참선이 잘 안 될 때면 〈법성게〉를 외우곤 한다. 그만큼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천수경〉 〈법성게〉 〈이산혜원선사발원문〉만 이해한다면 누가 등을 떠밀어도 불교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음을 먹으니 공부할 기회가 열렸다. 대원불교대학에서 기초를 다졌고, 봉선사에서 10년 동안 열렸던 〈능엄경〉 강의도 들었다. 신심이 깊어지자 자연히 포교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다. 3년 동안 시각장애인인 타종교인 부부를 데리고 새벽기도에 안내했다는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참선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안거를 거르지 않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했다.

책상 위에 〈금강경〉을 읽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지나다 보고 말씀했다. "결혼한 뒤 아들 둘을 잃고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 나간 적이 있어. 그런데 거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불교보다 나을 게 없더라. 그래서 다시 절로 돌아왔지. 너도 올바로 경전을 봐야 한다."

딸은 그때 처음 어머니가 전쟁 중에 잃은 아들 둘 말고 그전에 아들 둘을 더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불교가 맹목적으로 복만을 빌었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 넷을 가슴에 묻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생이별을 한 자신의 삶을 인과법과 연기법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신의 지식이 어머니의 불교보다 한수 아래임을 깨달은 딸은 그때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감동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결국 북으로 간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돌아가셨다. 4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눈을 감았다. 돌아가실 즈음에 〈지장경〉을 사경한 것 말고는 오로지〈천수경〉을 읽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관세음보살만을 염했다.

돌아가기 직전에 잠시 북한과 화해모드의 기류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과 만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 뉴스가 한창일 때도 어머니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온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아들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다. 큰사위가 위로했다.

"처남을 보고 가셔야죠. 곧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희망을 걸고 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의 눈빛에 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10년 후, 어머니 대신 판문점에서 여동생 네 사람이 오빠를 만났다. 오빠 쪽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만나던 날, 자광행 보살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염주와 경전을 가지고 나갔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절절히 기도를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달나달해진 책과 수없이 돌려서 반들거리는 염주를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원산폭격 때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나는 총알이 넓적다리에 박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시체를 헤치고 지나다가 내 신음소리를 듣고는 와서 보더니 '아이구, 어린 애구나' 하더라. 안됐는지 병원으로 싣고 가서 수술을 해주었어. 간호사 열 명이 교대로 수혈을 해줘서 살아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자매의 눈빛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그리고 무언으로 말했다.

"그토록 정성스럽고 간절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구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아들은 2, 3년 안에 통일이 될 거라면서 그때 염주와 책을 달라고 했다.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아채고 큰딸이 동생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오매불망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제사는 네가 지내라. 맹물에 밥 한 숟갈 얻어 잡수셔도 아들인 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어."

그 후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셨던 어머니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어느 도시 자동차 공장장을 지내고 당시 공장에서 자동차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며 지낸다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올해 86살이다. 생사가 본디 없다고 했으니, 지금 두 모자는 어딘가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어머니 정숙진(능인화) 여사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으니까.

〈작가〉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